

구윤철 부총리, 일본 동경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 경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일본측 초청(블룸버그)으로 개최
-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 독려

【 ① 회의 개요 】

재정경제부는 3.13.(금) 일본 동경에서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3.13일 16:30 / 블룸버그 일본 지사

동 설명회는 블룸버그 일본 지사가 개최한 ‘Invest in Asia: KTB’ 포럼에 재정경제부를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명회에는 일본에 소재한 100여명의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등 주요 금융 허브인 일본 동경 현지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한국 경제 발표 내용 】

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반도체·원전·조선·방산 등 한국이 가진 경쟁력·비교우위가 AI 시대, 지정학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AI시대 대응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 일관되고, 확고할 것임을 밝히면서 바로 지금이 ‘한국 경제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는 투자자 대상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통해 ①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펀더멘털, ②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③ 정부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였다.

① 수출이 9개월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성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며 실업률과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 대외채무 등 대내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견조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②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선, 방산, 원전 등 여러 산업에 걸쳐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방한관광객('25년 1,893만명) 및 콘텐츠·뷰티 등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산업이 부상하는 등 한국 경제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③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 산업 육성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구현 등의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재정 투입, 세제·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의 정책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 강화 방안도 설명하였다.

【 ③ 한국 경제에 대한 질의·응답 】

참석자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외환, 국채 등 관련 시장과 제도·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측은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그간의 제도·규제 개선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투자 애로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자 친화적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혁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와 같은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현황·제도와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행사가 투자자들의 수요(니즈)를 충족시키고 투자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오늘 발표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시장 개혁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해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 ④ 고위급 일본 투자자 면담(라운드테이블) 】

한편,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에 앞서 주요 일본 금융기관의 고위급 임원*들과 라운드 테이블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한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양국 경제·금융 분야에서 구체화되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국에 투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도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과 의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 미쓰비시UFJ(MUFG) 은행, 미즈호 증권, 노무라 증권, 다이와 증권 및 블룸버그의 회장, 부회장 등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ty703@korea.kr) 사무관 이태수 (taesulee@korea.kr)

